

10·26 후폭풍... 거세질 총선 물갈이론

한나라, 이대론 수도권 전멸 위기 혼돈속으로

민주, 기초단체장 완패... 야권통합 주도 난관

10·26 재보선으로 여야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4월 19대 총선의 예고편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영남과 충청, 야권은 서울과 호남에서 우위를 보였다. 강원도는 박빙이었기 때문에 판세를 알 수 없고 경기도는 서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야당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수도권 전멸 위기감이 당에 흐르고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승리한 곳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에 그쳤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나머지 21개 구에서 승리했고 나 후보와 득표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도 관악·금천·마포·강북·은평·성북·서대문·구로·동작·광진·노원·강서·종로 등 13곳에 달했다.

이 같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48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건질 수 있는 곳은 7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나라당의 서울 의석이 38석인 점을 감안하면 야권통합·연대가 성사되면 30석까지도 빼앗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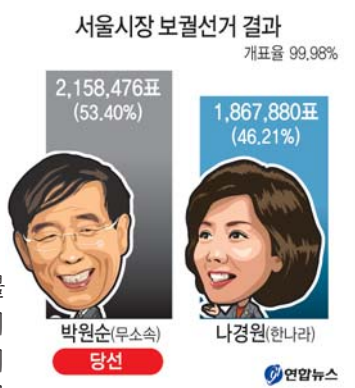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의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이 서울과 유사한 투표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히려 야성이 강해 지난 총선 때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선전한 지역이다.

서울·경기·인천의 총 의석 수는 111석. 여기서 패배는 총선 패배로 직결된다.

한 당직자는 27일 "현재의 상황에서 야권의 통합이나 연대가 성사된다면 여당이 수도권에서 30석 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뭔가 국민이 마음을 움직일만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서울에 후보를 못 낸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완패했다. 최근 강세를 보여왔던 강원과 충북지역에서 패했으며, 부산에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강원 인제군수 선거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가 패인으로 꼽히지만 부산지역은 후보단일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표차로 패해 한나라당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면에서 나서 민주당 이해성 동구청장 후보를 총력 지원했지만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여당 텃밭인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라 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판이었다.

"혁신과 통합"과의 통합을 통해 부산·경남에서 10석 이상을 기대했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충청·강원권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즉,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호남 외에 만만치 지역이 한 곳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다행인 것은 범야권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이끌어 야권통합만 이뤄내면 수도권 완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도 통합·연대

까지의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 '안철수 신당'이라는 일부 정치세력의 시도를 저지했을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효과' 야권통합 속도 낼까

발판 마련... 민주·혁신통합 주도권 경쟁

차, 제3당 창당 일축... 민주 중심 통합 열어야

10·26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야권 대통합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범야권은 단일 후보를 배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나머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전멸, '야권 대통합'의 명분은 커지고 있다.

당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야권 대통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야권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야권이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야권대통합을 내걸고 있는 '혁신과통합'도 이날 오전 상임대표 단 회의를 열어 향후 대통합 추진

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는 등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혁신과통합은 11월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권의 제 정당에 참여하는 '혁신적 통합정당추진기구'를 발족,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3정당 창당설을 일축하면서 야권대통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손 대표와의 면담에서 제3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민주당과의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합, 연대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정당 창당설에 대해 "학교일만으로도 바빠서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자와 안 원장이 당분간 무소속을 유지하며 야권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야권대통합에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대통합을 바라보는 범야권의 시각이 제각각인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통합보다는 연대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등 대통합의 원칙에 찬성하는 정당과 세력이 일차로 통합한 뒤 나머지 야권과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개문발차(開門發車)'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민과 대화하는 박원순 27일 오전 지하철을 이용해 시청으로 첫 출근을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1호선 시청역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출근... 첫 결재는 무상급식 지원안

박원순 서울시장 첫날부터 파격 행보

박원순 서울시장 1호선 첫 출근부터 파격 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27일 오전 6시30분 방배동 자택에서 비서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시장 방문을 마치고선 4호선 동작역으

로 가 지하철을 타고 시청사로 출근했다.

박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차량유세를 하면서 당선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겠다고 거듭 밝혔던 '공약'을 곧바로 실행한 셈이다.

시청에 출근해서도 맨 먼저 들른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종합민원실이었다. 통상 시청사로 출근한 뒤 곧장 집무실로 올라갔던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민원실부터 찾아 시민,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4급 이상 서울시 간부 200여명과 가진 상견례 역시 부드러웠다. 직원들이 도열해 일어서이자 박 시장은 웃으며 "아~ 앉아 주세요"라며 긴장을 풀어주려 애쓰며 인사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표명했다.

시장당선증은 측근을 시켜 대신 받도록 했다.

그의 취임 후 첫 결재 서류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이었다.

박 시장은 오후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을 예방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제3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따로 갔지, 민주당과 경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3정당을 말하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통합과 변화라는 국민이 바라는 가치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그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오늘은 망놓고 박수 한번 쳐주고 싶다

www.kofca.or.kr

창립 2주년, 대한민국 금융대동맥
한국정책금융공사
KOFCA, KOREA FINANCE CORPORATION

대한민국 금융대동맥
KOFCA

한국경제의 내일을 여는 든든한 비전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요사업 : 중소기업 지원 /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고졸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채용구분 : 일반직 정규직원 (6급 수습사원)
· 수습기간 경과후 소정절차를 거쳐 상위직급 (5급 등) 승진 가능
채용인원 : 0명

지원자격 : · 상업계 특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입사지원일 기준)
· 당사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접수기간 : 2011. 10. 28 (금) 10시 ~ 11. 18 (금) 17시

접수방법 : 당사 채용홈페이지 (http://recruit.kofca.or.kr) 통해 인사지원서 제출
※ 인사관련 증빙서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는 우편 제출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자세한 사항은 당사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차별 없는 열린 사회,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만들겠습니다."